환경부-기상청, 기후변화협의체 출범

환경부와 기상청이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기후변화와 이에 따른 환경변화를 체계적으로 공동 연구하게 될 한국 기후변화협의체(KPCC)가 5월30일 출범했다.

기후변화협의체는 기후변화 관련 장단기 연구계획 수립, 연구과제의 종합조정 및 국제활동 지원 역할을 수행하며, 앞으로 국내 기후변화 연구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.

환경부 대기보전국장과 기상청 기후국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며 환경부와 기상청의 기후, 대기, 수자원, 산림 및 사회경제 등 부문별 전문가들로 구성된다.

기후변화협의체 산하로 대학 등 민간연구소가 참여하는 기후연구회를 9월 발족시켜 기후변화 연구를 체계화해 나갈 계획이다.

한편, 환경부와 기상청은 기후변화가 생태계 및 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 분석, 기후변화 적응방안 마련, 기후변화 예측모델 개발 등 3개 분야에 대한 공동연구를 추진해 2005년 하반기에 기후변화 중장기 연구계획안을 마련할 방침이다.

<화학저널 2005/06/01>

Copyright ⓒ 2003 by CMRI 화학경제연구원